

## 『민옹전』에 등장하는 壁書의 의미

박 인 희\*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벽서의 교육적 의미 |
| II. 『민옹전』에 등장하는 벽서의 이해 | 1. 학습과정으로서 의미   |
| 1. 벽서의 배경              | 2. 학습태도로서 의미    |
| 2. 벽서의 실상              | IV. 결론          |

### 개 요

박지원의 『민옹전』에 등장하는 벽서는 작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몇 줄 안 되는 짧은 내용이다. 그래서인지 『민옹전』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 벽서를 중요하게 다룬 적은 없었다. 본고는 『민옹전』에서 벽서의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루려고 한다.

박지원은 민유신을 죽는 날까지 포부를 잃지 않은 선비라고 했다. 박지원이 『민옹전』을 지은 이유는 이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옹전』의 내용에서 민유신의 이와 같은 면모는 민유신이 7살부터 70살이 될 때까지 매년 써 놓은 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민유신은 어려서부터 포부를 세워 실천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포부를 잃지 않았다. 민유신은 출사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포부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실력을 닦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박지원이 민유신을 ‘죽는 날까지 포부를 가진 뜻 있는 선비’로서 평가하고 전을 지어 기린 것

\* 국민대 교육대학원 조교수(bakdal69@hanmail.net)

은 책을 통해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통해 양반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책을 통해 공부하는 자로서의 삶은 구체적 목표의 설정, 공부한 것의 실천, 일정한 수준에 도달,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어 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민옹전』에 등장하는 박지원과 민유신의 교유 내용으로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이해할 때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박지원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전을 지었던 것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민옹전, 책, 박지원, 민유신, 방경각외전

## I. 서론

연암 박지원(1737-1805)의 문집인 『연암집』의 「방경각외전」에는 7편<sup>1)</sup>의 傳이 실려 있다. 「방경각외전」에 실린 작품들은 “실제의 사실에 토대하여 입전된 것”<sup>2)</sup>이지만 “일정한 주관과 치밀한 구상 하에 이를 선별적으로 재구성”<sup>3)</sup>하였다는 점에서 박지원의 사상과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본고의 대상인 「민옹전」도 「방경각외전」에 포함된 작품으로 내용은 박지원이 민유신과 교유하면서 나누었던 “은어와 우스갯소리, 담론(談論)과 풍자(諷刺) 등”<sup>4)</sup>이며, 민유신의 행적을 통해 박지원

1) 본래는 9편이나 「易學大盜傳」과 「鳳山學者傳」은 유실되어 自序만 전한다.

2) 김명호, 『박지원 문학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1, 29쪽.

민유신이 실존인물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방경각외전」이 사실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실존인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3) 김명호, 위의 책, 30쪽.

의 현실인식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옹전』에 대한 연구는 연암 소설의 차원에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주로 다루어졌으며 『민옹전』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sup>5)</sup> 『민옹전』에 대한 개별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치료의 측면에서 다룬 논문이 몇 편 존재한다는 점이다.<sup>6)</sup> 그 이유는 박지원이 민유신을 만났을 때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였는데 민유신 덕분에 조금 이나마 고통을 덜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야기꾼으로서 민유신에 주목한 논문<sup>7)</sup>도 있어 『방경각외전』에 포함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한다면 『민옹전』은 다각도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고도 『민옹전』을 다루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

---

4) 박지원, 『민옹전』, 한국고전종합DB 참조, [http://db.itkc.or.kr/index.jsp?biz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47&gunchaId=av008&munchId=01&finId=004&NodeId=&setid=532427&Pos=1&TotalCount=3&searchUrl=ok](http://db.itkc.or.kr/index.jsp?biz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47&gunchaId=av008&munchId=01&finId=004&NodeId=&setid=532427&Pos=1&TotalCount=3&searchUrl=ok)(2016. 5. 2.).

『민옹전』의 원문과 번역문의 인용시 이에 따른다.

5) 『방경각외전』에 실린 작품 중 『양반전』만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다른 작품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개의 경우 10편 미만의 논문에서 단독으로 다루어졌는데, 연암 소설의 차원에서 작품이 다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李家源은 『燕巖小說研究』(乙酉文化社, 1965)에서 『민옹전』을 포함하여 『방경각외전』의 작품들을 박지원의 1기 작품으로 나누었고, 박지원 작품들의 문학적 배경과 사상적 고찰, 풍자성 등에 대해 선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6) 조은심, 『불안과 우울 증세에 대한 문학치료의 사례』, 『문학치료연구』 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63~192쪽.

李民熙, 『심리 치료 측면에서 본 <閔翁傳> 小考』, 『古典文學研究』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429~459쪽.

신혜금, 『문학치료의 과정으로 본 <민옹전>』, 『영주어문』 18, 영주어문학회, 2009, 87~110쪽.

7) 황인덕 『‘이야기꾼’으로 본 <민옹전(閔翁傳)>의 ‘민옹’』, 『口碑文學研究』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67~98쪽.

조도현, 『<閔翁傳>을 통해 본 조선후기 이야기꾼의 존재와 고전소설 유통의 의미 탐색』, 『語文研究』 69, 어문연구학회, 2011, 189~212쪽.

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민옹전』에서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壁書로 민유신이 벽에 쓴 글이다. 민유신은 일곱 살 때부터 중국 인물의 행적을 벽에 간단히 써 놓았는데 『민옹전』의 내용으로 보아 민유신이 70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민옹전』에는 민유신의 집 벽이 모두 검정색이 되었다고까지 표현되었다. 박지원은 『방경각외전』 自序에 『민옹전』을 소개하면서 “벽에 써서 스스로 분발한 것은 게으른 이들을 깨우칠 만하다”라고 하여 벽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민옹전』의 벽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벽이 검어질 정도로 썼던 수많은 글 중에서 7개<sup>8)</sup>의 글만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방경각외전』의 자서를 고려한다면, 민유신이 벽에 써 놓은 글들은 스스로 분발하려고 써 놓은 것이며, 박지원이 소개한 이유는 게으른 이들에게 깨우침을 줄 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유신이 7살 때부터 벽에 글을 써 놓기 시작해서 70살이 될 때까지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유신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하다. 민유신이 어떤 내용을 써 놓았는지 밝히지 않더라도 스스로 분발하기 위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글을 써 놓는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지원은 7개의 글을 선택해서 소개하였다. 이 사실은 민유신이 70살이 되도록 벽서했다는 행적뿐만 아니라 벽에 쓴 내용도 게으른 이들에게 깨우침을 줄 만한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민옹전』에서 벽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게으른 이들에게 주려는 깨우침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옹전』의 벽서가 작품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드러나리라 본다. 아울러 민유신이나 박지원이 양반이라는 점에서 벽서가 교육적으로는 어

8) 벽서는 7, 12, 13, 18, 24, 40, 70세 때 쓴 것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70세에 쓴 내용에 이어서 벽서는 아니지만 80세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모두 8개가 소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면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양반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박지원의 『민옹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 II. 『민옹전』에 등장하는 벽서의 이해

### 1. 벽서의 배경

『민옹전』의 벽서를 이해하려면 벽서를 쓴 민유신과 민유신이 쓴 수많은 벽서 중 7개를 선택해서 소개한 박지원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 벽서를 쓴 민유신의 처지는 『민옹전』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민옹전』에는 민유신과 관련된 몇몇의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만 민유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민옹전』 언급된 내용 중 민유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 민유신이 어려서부터 옛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민유신이 처음으로 벽서를 썼던 때가 7살 때이고, 벽서의 내용은 『사기』를 읽어야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었다.<sup>9)</sup> 그러므로 민유신은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은 민유신이 양반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9) 李家源은 민유신이 7살 때 쓴 내용이 『戰國策』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민유신이 7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를 읽고서 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시용에 따르면 조선시대 서당에서 아이들은 『천자문』을 통해 글을 깨친 후에는 『소학』을 읽은 후 『대학』을 접하며, 이후 사서오경과 『사기』 등을 접한다고 한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7살의 민유신이 읽은 것은 『전국책』이었다기보다 『사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李家源, 앞의 책, 230쪽.

李時鎔, 『朝鮮朝 書堂教育』, 『論文集』 19-1, 仁川教育大學校, 1985, 495쪽.

민유신은 양반으로서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익혔지만 문반 집안 출신은 아니고 무반 집안<sup>10)</sup>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유신은 당시로서는 많은 나이로 할 수 있는 40대 후반에 토벌<sup>11)</sup>에 참가하여 첨사 벼슬을 받았다고 한다. 민유신이 글공부를 주로 하는 문반 집안 출신이었다면 40대 후반의 나이에 토벌에 참가해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민유신이 40대 후반에 토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유신이 무반 집안 출신이어서 평소에 신체 단련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민유신이 무반 집안 출신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에 신경을 써야 할 나이인 18살 때 쓴 벽서가 軍功을 세운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민유신이 문반 집안 출신이었다면 학문에서 업적을 이룬 인물을 벽서해 놓고 분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나이가 되어서도 민유신이 군공을 세운 인물에 관심을 두고 분발으려 했다는 것은 민유신이 무반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2)</sup>

민유신은 무반 집안 출신의 양반이었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박지원은 민유신이 토벌에 참가하여 공으로 첨사 벼슬을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민유신이 과거에 급제했다거나 다른 벼슬을 했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민유신은 과거에 급제한 적이 없고 제대로 된 벼슬도 하지 못한

10) 李家源은 '武人 출신'이라 단정지었다.

李家源, 위의 책, 224쪽.

11) 『민옹전』에는 무신년 때라 하였는데, 바로 이인좌의 난을 말한다.

12) 민유신의 성격이 구애됨이 없이 거침이 없다는 점, 민유신의 두 아들들도 모두 무과에 올랐다는 점도 민유신이 무반 집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혹은 민유신의 신분이 서얼이었을 수도 있다. 즉 민유신은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문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반 집안 출신처럼 보였을 수 있다. 박지원은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교유했고, 『방경각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으므로 민유신이 서얼이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민유신의 두 아들들도 무과에는 올랐지만 벼슬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민유신의 집안이 본래부터 넉넉하지 않았다면 두 대에 걸쳐 벼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한다면 박지원은 당대 명문가인 반남 박씨 출신으로 문반이었다. 박지원은 정사년(1737)에 태어났고, 16살에 결혼한 후에는 처숙인 이양천 밑에서 수학하고 있었다. 박지원의 집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박지원의 부친은 벼슬을 한 적이 없고, 집안 살림은 벼슬을 하던 조부 박필균에 의해서만 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그렇지만 박지원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민유신보다는 나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원이 민유신과 만나기 전까지 박지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박지원이 병[우울증]을 앓았었다는 점이다. 박지원이 병을 앓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박지원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박지원이 병을 앓은 후 지은 『방경각외전』은 당시의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sup>14)</sup> 박지원이 당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썼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실망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지원을 힘

13) 『민옹전』에도 민유신이 박지원에게 집이 가난하다고 했으며, 실록에도 박필균이 죽었을 때 염빈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으니 형편이 넉넉했다고 할 수는 없다. 원문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를 따랐음을 밝히며, 이후 인용하는 원문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를 따랐음을 미리 밝힌다.

“知敦寧朴弼均卒 弼均踈於事務 而性頗寒素 居官無治績之譽 臨歿乏殯斂之具云”(『英祖實錄』 卷96, 36年 8月 癸酉條).

14) 그래서 『방경각외전』의 저술동인을 “18C 조선 사회가 안고 있었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로 인한 윤리도덕의 타락”으로 보기도 한다.

박기석, 『燕巖 漢文短篇小說의 現實認識 - <放菴閣外傳>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6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87, 422쪽.

들게 했던 것은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박지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주변의 기대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 했고 과거를 보아야만 했다.<sup>15)</sup> 특히 박지원의 장인인 이보천은 박지원을 애지중지하였고, 옛사람이 이룬 바와 같은 성취를 박지원이 이루기를 기대하였다고 한다.<sup>16)</sup> 박지원이 장인의 기대를 몰랐을 리 없으므로 장인의 기대가 17·8살의 박지원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즉 17·8살의 박지원은 “혼탁한 정치 현실과 그에 따른 양반사회의 염량세태(炎涼世態)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품게 되면서, 자신의 장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번민을 거듭”<sup>17)</sup>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박지원이 병을 앓은 것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어서 심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민유신은 70대의 노인으로 무반 집안 출신 양반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아무것에도 구애됨이 없는 인물이었다. 박지원은 10대 후반의 젊은이로 문반 명문가 출신으로 주위의 기대와 실망스런 현실 사이에서 심적 부담을 크게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민유신과 박지원은 이처럼 다른 처지의 인물이었지만 뜻밖에 만나 5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지원은 민유신이 죽자 애통해 하며 『민옹전』을 지어 민유신을 기렸다. 『민옹전』의 벽서를 이해하려면 민유신과 박지원의 이와 같은 처지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5) 이후에 박지원은 과거에서 시를 써 내거나, 빈 답안지를 내거나, 그림을 그려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박지원이 실망스런 현실에서 과거에 급제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16) 박희병 역(朴宗采 著), 『나의 아버지 박지원』(『過庭錄』), 돌베개, 1998, 18쪽; 279쪽.

“…而處士特愛重之 誨責規切 以古人事業期之 嘗語學士曰 某也 見其才氣大非凡類 必爲異日偉人…”(『過庭錄』).

17) 김명호, 앞의 책, 184쪽.

## 2. 벽서의 실상

『민옹전』에 등장하는 벽서에는 중국의 인물들의 행적이 언급되어 있다. 감라, 괘거병, 항적, 맹자, 범중처럼 유명한 위인들도 있지만, 항탁과 외황아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sup>18)</sup>들도 있다. 벽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와 민유신이 벽서를 썼을 당시의 나이가 같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유신은 인물들이 자신과 같은 나이의 인물들을 본받기 위해 행적을 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이 벽서에 대해 『방경각외전』 자서에서 “벽에 써서 스스로 분발한 것은 게으른 이들을 깨우칠 만하다”라고 언급한 것도 그와 같은 의도였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와 행적은 아래와 같다.

7살 - 項橐爲師	12살 - 甘羅爲將
13살 - 外黃兒遊說	18살 - 去病出祈連
24살 - 項籍渡江	40살 - 孟子不動心
70살 - 范增好奇計	[80살 - 呂尚八十鷹揚]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며 행적도 다르다. 항탁은 공자의 스승이 되었고, 감라는 장수가 되었으며, 외황아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또한 괘거병은 흉노족을 물리치기 위해 출정했으며, 항우는 조왕을 구하기 위해 오강을 건넜다. 맹자는 부동심을

18) 항탁과 외황아는 『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항탁은 『사기』 『감무열전』에서 감라가 여불위를 설득하는 말 중에 항탁은 7살 때 공자의 스승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등장한 인물이다. 외황아는 『사기』 『항우본기』에 따르면 항우가 외황이라는 곳을 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파묻어 죽이려 했을 때, 그곳 솜사의 13살 된 아들로써 항우에게 유세하였던 인물이다. 항탁과 외황아는 해당 이야기에 등장하면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 널리 알려진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가졌다 하고, 범증은 기묘한 피를 좋아했다고 한다.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적이 다양하므로 민유신이 벽서를 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벽서를 한 나이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와 자신의 나이가 같기 때문이다.

민유신이 벽서를 한 것은 7살 때부터인데, 벽서를 시작한 것은 그의 처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서 민유신의 처지를 넉넉하지 않은 무반 출신 양반으로 보았다. 민유신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총명하였다고 했으므로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도 알았을 것이다. 더구나 글공부를 하면서부터 자신과 같은 나이에 책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의 행적을 알게 됨으로써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은 당연하다. 민유신이 벽서를 시작한 것은 자신과 같은 나이의 역사 속 인물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벽에 써 놓음으로써 스스로 헤이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유신이 벽서를 시작한 것은 이런 의도였겠지만 벽서에 담긴 뜻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박지원은 『민옹전』의 후반부에는 시 한 편을 실었는데 시의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벽서를 단서로 삼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아! 민옹이시여,	嗚呼閔翁
괴상하고 기이하기도 하며	可怪可奇
놀랍고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可驚可愕
기뻐함직도 하고 성냄직도 하며	可喜可怒
게다가 밋살스럽기도 하구려.	而又可憎
벽에 그린 까마귀	壁上烏
매가 되지 못하였듯이	未化鷹
옹은 뜻 있는 선비였으나	翁蓋有志士
늙어 죽도록 포부를 펴지 못했구려.	竟老死莫施
내가 그대 위해 전을 지었으니	我爲作傳
아! 죽어도 죽지 않았구려.	嗚呼死未曾

시에 따르면 민유신은 ‘포부를 가진 뜻 있는 선비’였다. 그런데 박지원은 이 시에 앞서 민유신과 나눴던 “은어와 우스갯소리, 담론(談論)과 풍자 등”을 기록하여 『민옹전』을 지었다고 밝혔다. 『민옹전』의 내용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민유신이 어떤 뜻을 가졌었는지, 어떤 포부를 가졌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박지원이 『민옹전』을 지은 이유도 불분명해진다. 박지원이 『민옹전』을 지은 것은 민유신과 교류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박지원이 민유신의 전을 지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전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를 바탕으로 한다면 박지원이 『민옹전』을 지은 이유는 민유신이 죽는 날까지 포부를 가진 뜻 있는 선비<sup>19)</sup>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화만으로는 민유신이 그러한 인물이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또한 시에서도 민유신의 포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민옹전』에서 벽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민유신이 죽는 날까지 포부를 가진 뜻 있는 선비였음이 벽서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옹전』에서 벽서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유신의 포부는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구체화되고 있다. 민유신은 7살에 ‘項橐爲師’, 12살에 ‘甘羅爲將’이라고 벽서했다. 그런데 ‘항탁위사’는 항탁이 7살에 공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뜻이며, ‘감라위장’<sup>20)</sup>은 감라가 12살에 장수가 되었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유신이 벽서했을 당시의 나이와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가 같다. 이 사실로 보아 민유신은 자신과 나이가 같은 인물의 행적에 감명 받아서 자신도 이제부터 노력해서 벽서에 등장하는

19) 박지원은 민유신을 ‘뜻 있는 선비[志士]’라 표현했다. 박지원이 민유신을 선비라 한 것은 양반으로서 벼슬을 하지 못했음에도 포부를 갖고 실력을 닦았기 때문일 것이다.

20) ‘감라위장’의 경우 감라가 12살에 장수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항탁위사’와 같이 놓고 본다면, ‘師’와 ‘將’이 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도 보인다.

인물과 같은 실력을 갖추겠다는 포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그런데 민유신이 벽서를 썼을 때 나이와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적을 고려한다면 민유신의 포부는 무척이나 컸다고 할 수 있다. 노력을 하더라도 공자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거나, 감라가 이론 업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렇게 벽서를 했다는 것은 어렸을 적 민유신의 포부가 원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유신의 포부는 한두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체화된다. 민유신은 13살 때 ‘外黃兒遊說’, 18살 때 ‘去病出祈連’이라고 벽서했다. ‘외황아유세’는 13살 된 외황아가 항우에게 노여움을 받아 죽게 된 사람들을 유세로 구했다는 뜻이며, ‘거병출기련’은 괘거병이 흉노족을 치기 위해 출병하였다는 내용이다. 두 벽서에서 소개된 인물의 행적 역시 그 나이에 보통의 사람이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에 썼던 벽서와 동일하다. 하지만 민유신이 항탁이나 감라 같은 실력을 길러 무엇을 하려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체화된 포부라 할 수 있다. 민유신이 ‘외황아유세’라 벽서한 것은 죽게 된 사람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며, ‘거병출기련’이라 벽서한 것은 오랑캐를 물리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표현이다. 즉 항탁과 같은 실력을 갖추어 외황아처럼 사람들을 구하거나, 감라와 같은 실력을 갖추어 괘거병처럼 오랑캐를 무찌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외황아유세’와 ‘거병출기련’은 ‘항탁위사’와 ‘감라위장’보다 구체화된 포부인 셈이다.

‘項籍渡江’은 젊은 민유신의 포부가 집대성되어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항적도강’은 민유신이 24살 때 쓴 벽서로 항우가 秦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조왕을 위해 기병하여 강을 건넜다는 뜻이다. 민유신이 기

21) 이는 다른 벽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벽서에 따라 실력은 일, 태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할 일은 없으므로 ‘항적도강’이라 벽서한 것은 항우처럼 왕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양반인 민유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출사하여 왕을 보좌하겠다는 표현이다. 또한 항우가 포위당한 조왕을 위해 도강하였다는 점에서 왕의 주변에서 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로부터 왕을 구하기 위해 출사하겠다는 표현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다. 민유신이 이렇게 벽서한 것은 이전의 벽서를 통해 실력의 쌓아 백성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포부를 출사의 형식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의 벽서 4개는 ‘항적도강’이라는 벽서의 실천을 위한 밑바탕인 셈이며, ‘항적도강’은 젊은 날에 민유신이 가졌던 포부를 집대성한 표현이자 포부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항적도강’까지의 벽서가 대개 10년 이내에 쓴 벽서라면 ‘孟子不動心’과 ‘范增好奇計’는 ‘항적도강’이라는 벽서를 쓴 지 긴 시간이 지난 뒤 쓴 벽서들이다. 물론 이 기간에도 민유신은 매년 벽서했겠지만 박지원은 그 중에서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민옹전』에 소개하였다.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벽서에서 민유신의 포부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유신은 ‘항적도강’이라는 벽서를 통해 출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맹자부동심’을 “출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당대 사회제도에서 출사할 길이 없음을 한탄한 것”<sup>22)</sup>으로 보기도 한다. ‘맹자부동심’을 이해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지원은 민유신이 늙도록 포부를 펴지 못한 것을 슬퍼했다는 점이다. ‘맹자부동심’이 민유신이 40살에 출사를 포기하고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벽서였다면 박지원이 민유신이 늙도록 포부를 펴지 못한 것을 슬퍼했을 리 없다. 박

22) 姜賢模, 『閔翁傳 研究』, 『韓國學論集』 15,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9, 228쪽.

지원은 민유신이 늙도록 자신의 뜻을 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이 벽서 역시 민유신이 40살에도 포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래야만 70살 때 쓴 ‘범증호기계’와 呂尙<sup>23)</sup>을 언급한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맹자부동심’은 벼슬을 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다. ‘부동심’은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벼슬에 올라 도를 행할 수 있다면 마음이 달라지는 일이 없겠는지 물었을 때, 맹자가 나이 마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 대답에서 나온 말이다.<sup>24)</sup> 그러므로 이 벽서는 벼슬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맹자부동심’은 “두려움 없는 용기, 도덕적인 끈음, 지적인 탁월성을 의미상의 특징”<sup>25)</sup>으로 갖는다고 한다. ‘맹자부동심’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벽서는 민유신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 벼슬을 한다고 해도 초년에 품었던 뜻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된다. 즉 흔들림 없이 자신의 포부를 지켜나가겠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맹자부동심’을 이렇게 이해하면 70살에 ‘범증호기계’라 벽서한 것과 ‘범증호기계’를 쓰면서 부인에게 여상을 언급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범증은 70살이 넘어서, 여상은 80살이 넘어서 등용될 수 있었다. 즉 범증과 여상은 나이가 들어서도 포부를 품고 때가 오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민유신이 ‘맹자부동심’을 통해 자신의 포부를 포기했다면 ‘범증호기계’라 벽서할 이유가 없어진다. 결국 민유신은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이 포부를 품고 있음을 ‘맹자부동심’을

23) 흔히 강태공으로 알려진 인물로 80년 동안 낚시를 하여 부인이 집을 나간 후 주나라 문왕에게 등용된다.

24) 김학주 역(孟子), 『孟子』, 서울대출판문화원, 2013, 105쪽.

“公孫丑問曰 夫子加齊之卿相 得行道焉 雖由此霸王不異矣 如此 則動心否乎 孟子曰 否 我四十不動心”(『孟子』, 公孫丑上).

25) 김태오, 『맹자의 부동심의 교육적 의미』, 『教育哲學』 13, 한국교육철학회, 1995, 69쪽.

통해 표현했으며, 노년이 되어서도 포부는 변함이 없음을 ‘범증호기계’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박지원이 『민옹전』에 소개한 ‘항탁위사’부터 ‘범증호기계’까지 7개의 벽서는 민유신의 포부가 담긴 표현이 된다. 민유신의 포부는 넉넉하지 않았던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세운 포부는 아니다. 민유신의 포부는 양반으로서 실력을 쌓아 백성과 나라를 위해 출사하여 왕을 보좌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민유신은 자신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 실천하였으며, 출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늙어서 까지도 언젠가 올지도 모를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쌓고 있었다. 즉 변함 없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박지원은 민유신과 교류하면서 민유신이 써 놓은 벽서를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원대한 포부와 의지, 그리고 태도를 이해하였던 것이다. 박지원이 시에서 민유신을 죽는 날까지 포부를 가진 뜻 있는 선비라 한 것은 벽서를 통해서 민유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지원은 『민옹전』을 지어 그의 삶을 기리며, 죽는 날까지 포부를 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박지원이 민유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은 당시 조선의 양반 사회에서 민유신과 같은 인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지원은 당시의 양반 사회에 대해 권세와 이익만을 좇아 이합집산하는 세태가 만연했다고 보았다.<sup>26)</sup> 그렇기 때문에 『방경각외전』 자서에 『민옹전』을 언급하면서 벽서에 대해 “벽에 써서 스스로 분발한 것은 게으른 이들을 깨우칠 만하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즉 벽서를 소개함으로써 양반들이 양반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반이 권세와 이익을 좇다보면 양반으로서의 본분

26) 『과정록』에는 박지원이 『민옹전』을 포함하여 『방경각외전』 아홉 작품을 지은 것이 권세와 이익을 좇는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을 잇을 수밖에 없다. 양반이라면, 더욱이 글공부를 하는 선비라면 ‘修己治人’이 자신들의 본분임을 알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양반들은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 데 급급했고 실력을 쌓는 데는 소홀했다. 민유신의 삶을 알고 있는 박지원에게 당시 양반들의 삶은 양반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게으른 삶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은 민유신의 벽서에 대해서 ‘게으른[양반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본다면 [양반으로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우칠 만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글공부를 한 양반이라면 민유신의 벽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벽서를 통해 민유신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박지원이 『민옹전』에 표현해 놓은 민유신의 모습은 괴팍한 늙은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박지원이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박지원에게 글쓰기란 “뜻을 얻지 못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속상함의 에너지를 글로써 풀어내는 것”<sup>27)</sup>이었고, ‘풍자와 골계’<sup>28)</sup>로써 속상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박지원은 민유신과 같은 인물이 등용되지 못하는 사회 현실에 불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옹전』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민유신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민옹전』에 본받을 만한 행적으로 소개하면서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기리지도 않았다. 박지원이 선택한 방법은 민유신을 “제멋대로 세상을 조롱하는[翫世不恭]” 괴팍한 늙은이처럼 표현하는 것이었다. 박지원이 민유신을 괴팍하게 표현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내지는 불만의 박지원식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이 있어도 등용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고 싶으나 양반 사대부로서

27) 박수밀, 『박지원 문학에 나타난 글쓰기의 기본 방침』, 『溫知論叢』 34, 溫知學會, 2013, 176쪽.

28) 박수밀, 위의 논문, 176쪽.

그럴 수 없으니 능력 있는 사람을 탓하는 수밖에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을 탓하려니 능력 있는 사람을 괴팍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이 등용되지 않는 이유를 부조리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내지는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옹전』에서 벽서는 중요하다. 벽서가 없었다면 민유신은 괴팍한 늙은이에 불과했겠지만, 벽서가 존재함으로써 민유신은 본받을 만한 인물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옹전』에서 벽서는 민유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민유신은 어려서부터 포부를 세워 실천하였으며 죽을 때까지도 포부를 저버리지 않았다. 민유신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실력을 길러 출사하는 것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래서 박지원은 민유신이 포부를 펴지 못하고 죽자 애통해 했으며, 전을 지어 민유신을 기렸던 것이다. 『민옹전』에서 벽서는 민유신이 ‘죽는 날까지 포부를 가진 뜻 있는 선비’로서의 삶을 살다 갔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벽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유신의 변함없는 삶의 태도를 통해 양반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삶을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 Ⅲ. 벽서의 교육적 의미

#### 1. 학습과정으로서 의미

박지원은 수많은 벽서 중에서 7개를 선택해서 소개하였다. 7개를 선택한 이유는 그 벽서들에 민유신의 포부가 담겨 있으며, 민유신의 삶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었던 배우고 익히는 사람으로서 삶을 대하는 태도도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벽서 7개를 통해서 조선시대 배우고 익히는 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즉 벽서를 통해서 공부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민유신이 7살 때 쓴 ‘項橐爲師’는 향탁이 공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이며, 민유신이 ‘향탁위사’라 쓴 것은 향탁처럼 되겠다는 포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유신이 향탁처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향탁위사’라고 쓸 때 민유신은 이미 7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유신이 7살에 ‘향탁위사’라 쓴 것은 지금부터라도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향탁처럼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대체로 7~8세 전후가 되면 훈장에게 글을 배우는 것이 통례”<sup>29)</sup>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민유신이 7살에 쓴 ‘향탁위사’는 양반으로서 공부의 과정에서 본다면 글공부의 시작을 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살에 쓴 ‘甘羅爲將’은 무반 출신으로 볼 수 있는 민유신의 처지가 반영된 벽서라 할 수 있다. ‘향탁위사’와 마찬가지로 민유신이 12살에 감라처럼 될 수는 없다. 민유신은 12살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감라처럼 되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감라는 장수는 아니다. 그럼에도 민유신이 ‘감라위장’이라 벽서한 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不戰而勝]’는 것을 장수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감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영토를 확장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감라가 장수가 아님에도 ‘감라위장’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민유신이 ‘감라위장’이라 벽서한 것은 장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sup>30)</sup>

29) 金容載, 『조선시대의 儒敎敎育』, 『韓國思想과 文化』 2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235~236쪽.

30) 그런데 글공부를 7살에 시작한 것에 비해 무예 수련을 5년 후인 12살에 시작하였다. 이것은 장수가 되기 위해 무예를 수련하려면 신체가 어느 정도

13살 때 쓴 ‘外黃兒遊說’와 18살에 쓴 ‘去病出祈連’은 ‘항탁위사’와 ‘감라위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부의 과정에서 본다면 ‘외황아유세’와 ‘거병출기련’은 구체적 목표의 설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황아는 일개 사인의 아들로써 마을 사람들을 파문어 죽이려는 항우 앞에 나서서 유세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항우 앞에서 두려움 없이 유세하였다는 점에서 민유신은 외황아의 용기를 본받으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세했다는 것은 민유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배운 것[修己]을 실천하는 것[治人]이 된다. 유교에서는 흔히 ‘군자’를 교육적 이상형으로 내세우는데 군자는 “부단(不斷)한 자기 수양[修身]을 토대로 도덕적 실천[安人]을 완성한 사람”<sup>31)</sup>을 말한다. 외황아가 유세한 것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도록 들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민유신이 ‘외황아유세’라 벽서했던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공부를 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의 설정이며, 이는 ‘항탁위사’로 시작된 공부의 구체화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거병출기련’도 마찬가지이다. 광거병은 오랑캐인 흉노족을 치기 위해서 출병하여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민유신이 ‘거병출기련’이라 벽서한 것은 광거병처럼 오랑캐를 무찌르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민유신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민유신이 무반 집안 출신이기도 하지만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당시 조선은 병자호란 후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일으킨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청 태종에게 항복하는 굴욕을 겪었다. 특

성장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武科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연마할 수 있었던 시험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若武藝則一年二年之學也.”(『太宗實錄』 卷10, 10年 10月 壬戌條).

31) 金容載, 앞의 논문, 245쪽.

히 임진왜란 때와 달리 병자호란 때는 변변한 저항조차 못했으며, 무반에게는 치욕적이라 할 수 있는 쌍령 전투<sup>32)</sup>의 패배까지 있었다. 그래서 민유신은 무반으로서 청나라를 침입이 다시 있을 경우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을 쌓겠다는 뜻으로 ‘거병출기련’이라 벽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거병출기련’이라는 벽서는 무예 수련을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목표이며, ‘감라위장’으로 시작된 장수가 되기 위한 수련의 구체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4살에 쓴 ‘項籍渡江’은 출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 하였다. 출사한다는 것은 벼슬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조선시대에 벼슬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전에 쓴 벽서를 고려해서 ‘항적도강’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국가와 백성들을 위협하는 존재를 물리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공부의 과정에서 이해한다면 목표를 정해 공부해 온 것들을 실천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목표를 세워 시작한 공부는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은 실력을 실천할 때 가치가 있다. ‘항적도강’을 쓰기 전까지가 실력을 쌓는 기간<sup>33)</sup>이었다면 ‘항적도강’을 쓴 이십 대 중반부터

32) 『練藜室記述』에 따르면 쌍령 전투는 병자호란 때 경기도 광주 쌍령에서 청나라 기병 300명에게 조선 관군 4만여 명이 패한 전투이다. 『仁祖實錄』에는 경상좌병사 허완(許浣)과 우병사 민영(閔楛)이 쌍령에 이르렀으나 허완은 군사가 패하여 교전도 못하고 죽었으며, 민영은 힘껏 싸우다 죽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왜적에게 여러 차례 패전하였지만 행주대첩이나 한산도대첩처럼 크게 이긴 전투도 있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는 크게 이겼다고 내세울 만한 전투가 없으며, 쌍령 전투에서는 청나라 군사에게 크게 졌다는 점에서 치욕적이라 할 만하다.

『練藜室記述』, 卷26, 仁祖朝古事本末, 諸將事跡; 『仁祖實錄』 卷34, 15年 1月 乙卯條 참조.

33) 배움의 시작인 ‘항탁위사’와 ‘감라위장’에서 구체적 목표의 설정인 ‘외황아유세’와 ‘거병출기련’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배움에 첫발을 내디디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공부해 온 것을 실천해 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자신이 공부해 온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출사를 해야만 한다. ‘항적도강’은 출사하겠다는 민유신의 포부라 볼 수 있지만 공부의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껏 배우고 닦은 실력을 출사하여 현실에서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맹자부동심’은 벼슬을 하지 못한 민유신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 벼슬을 한다고 해서 초년에 품었던 뜻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부의 과정에서 ‘맹자부동심’을 본다면 그와 같은 과정<sup>34)</sup>을 거쳐 온 완성으로서 의미가 있다. 맹자가 40살에 흔들림 없는 마음[不動心]을 갖게 된 것은 꾸준한 자기 수양의 결과이다. 수양을 하지 않았는데도 40살이 되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수는 없다. 민유신이 40살에도 자신의 포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포부를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공부의 과정에서 ‘맹자부동심’을 보면 공부의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로서 지금까지 실천해 온 과정이 마무리됨을 의미하며, 공부한 것이 일정한 경지에 도달해 흔들림이 없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부의 과정에서 ‘范增好奇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민유신에게 ‘범증호기계’는 자신의 포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공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공부한 것의 수준이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해서 공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부의 수준이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으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흔들림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공부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아야 하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공부라는 것

34) 즉 ‘항탁위사/감라위장 → 외황아유세/거병출기련 → 항적도강’으로 이어 온 과정을 뜻하며, ‘배움의 시작(귀감 선정) → 구체적 목표의 설정 → 목표의 실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다.

은 자신이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범증호기계’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의 삶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점에서 벽서는 공부하는 과정과 그 과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벽서를 통해 공부하는 자의 삶이 공부의 시작부터 구체적 목표의 설정, 공부한 것의 실천, 일정한 수준에 도달,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옹전』의 벽서는 조선시대 공부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민유신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삶을 충실히 따랐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학습태도로서 의미

『민옹전』의 벽서가 공부의 과정이며 각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런데 벽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도 보여준다. 공부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 선생님에게 동일한 내용을 함께 수업 들어도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각기 다르다. 점수가 다른 이유는 학생의 선천적인 능력이 달라서일 수 있지만 학생이 수업에 어떻게 임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공부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벽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벽서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유신은 향탁부터 범증까지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본받고자 한 인물들의 한 행적까지 밝혀 놓았다. 흔히 공부를 할 때 중요시하는 것의 하나는 공부하는 시간의 양이다.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목표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목표가 없을 때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있어야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부의 효과를 점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부하는 목표는 공부하는 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민유신이 본받으려 한 인물과 행적이 처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와 70살이 되었을 때 각각 달랐던 것처럼 목표는 때에 따라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정하고 공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벽서는 공부하는 사람은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민유신은 7살 때부터 벽서를 쓰기 시작해서 70살이 되어서까지 벽서를 썼다. 그리고 누가 벽서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벽서하였다. 벽서의 내용도 책을 읽고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기를 70살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벽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뀐 것도 민유신이 누구를 따라서 바꾼 것이 아니라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공부를 이뤄가기 위해서 합당한 인물을 자신이 선택하여 본받으려 노력한 것이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공부했을 때 자신이 한 공부에 자신이 생기게 되며, 자신의 삶에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 『민옹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소 괴팍하기까지 한 민유신의 성품과 거침이 없는 언행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sup>35)</sup>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한 공부에 후회가 없게 된다.

세 번째로 벽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여유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유신의 벽서에서 배움의 시작에서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까지 걸린 시간은 6년이다. 즉 ‘향탁위사’에서 ‘외황아유세’까지, ‘감라위장’에서 ‘거병출기련’까지 걸린 시간이 6년이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이후 실천하는 단계까지인 ‘외황아유세’에서 ‘항적도강’은 11년, ‘거병출기련’에서 ‘항적도강’은 6년이 걸렸다.<sup>35)</sup> 이후에는 ‘맹자부동심’까지는 16년, ‘범중호기계’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것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목표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조급해 하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다음 단계의 목표 또한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세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공부의 성과는 빨리 이루려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벽서는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공부하기도 했지만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평생 공부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다. 민유신도 7살 때부터 70살이 넘도록 공부를 했으며 그 과정이 벽서에 담겨 있었다. 또한 벽서를 통해서 민유신이 공부를 어떻게 임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무릇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공부해야 하며, 공부에 능동적이어야 하며, 공부를 함에 여유로운 태도를 갖춰야

35) 박지원은 이를 다소 과장해서 표현했기에 『민옹전』에서 민유신은 과확한 것처럼 표현된 것일 수 있다.

36) 11년과 6년의 차이는 글공부와 무예 수련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유신이 무반 출신이라도 글공부하는 것이 당시의 양반들에게는 더 필수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다. 민유신이 공부에 임했던 태도는 조선시대에만 적합한 태도라 할 수는 없다. 민유신이 공부에 임했던 태도는 현대에도 게으른 사람들이라면 본받아야 할 태도이며,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박지원의 『민옹전』에서 벽서는 작품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몇 줄 안 되는 짧은 내용이다. 그동안 『민옹전』이 다루어지면서도 벽서에 대해 관심을 두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민옹전』이 민유신의 전이라는 점에서 『민옹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민유신에 대해 전을 지을 만한 인물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원이 민유신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병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전을 지었을 리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민옹전』의 주된 내용이 뜻 있는 선비로서 죽는 날까지 포부를 가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민옹전』에서 벽서는 박지원이 민유신의 전을 지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박지원이 『민옹전』을 지어 민유신을 기리고자 했던 것은 민유신이 죽는 날까지 포부를 잃지 않은 뜻 깊은 선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유신의 이와 같은 면모는 바로 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이 소개한 벽서 7개는 민유신의 삶의 궤적을 잘 보여준다. 민유신은 어려서부터 포부를 세워 실천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포부를 잃지 않았다. 민유신은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무반 출신이었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실력을 닦아 출사해야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민유신은 출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포부를 저버리

지 않았으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날을 위해 실력을 닦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은 민유신을 ‘죽는 날까지 포부를 가진 뜻 있는 선비’로서 평가한 것이며, 민유신이 죽자 전을 지어 기린 것이다. 민유신의 삶은 양반으로서 본분을 잃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벽서를 통해 자신들의 게으름을 깨닫게 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벽서는 조선시대 양반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벽서를 통해 공부하는 자로서의 삶은 공부의 시작, 구체적 목표의 설정, 공부한 것의 실천, 일정한 수준에 도달,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어 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공부해야 하며, 공부에 능동적이어야 하며, 공부를 함에 여유로운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도 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민옹전』의 벽서는 조선시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삶을 충실히 따랐던 민유신이라는 인물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벽서는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 『민옹전』에서 박지원과 민유신의 교유 내용을 통해서도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벽서를 통해서 민유신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때, 박지원이 전을 지어서까지 기리고 싶었던 민유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29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閔翁傳』, 『放孺閣外傳』, 『練蔡室記述』(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http://db.itkc.or.kr> 참조).
- 『太宗實錄』, 『仁祖實錄』, 『英祖實錄』(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참조).
- 姜賢模, 『閔翁傳 研究』, 『韓國學論集』 15,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9.
- 김명호, 『박지원 문학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01.
- 金容載, 『조선시대의 儒敎敎育』, 『韓國思想과 文化』 2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 김태오, 『맹자의 부동심의 敎育적 의미』, 『敎育哲學』 13, 한국敎育철학회, 1995.
- 김학주 역(孟子 著), 『孟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박기석, 『燕巖 漢文短篇小說의 現實認識 - <放孺閣外傳>을 중심으로』, 『국어敎育』 61, 한국국어敎育연구학회, 1987.
- 박수밀, 『박지원 문학에 나타난 글쓰기의 기본 방침』, 『溫知論叢』 34, 溫知學會, 2013.
- 박희병 역(朴宗采 著), 『나의 아버지 박지원』(『過庭錄』), 돌베개, 1998.
- 신혜금, 『문학치료의 과정으로 본 <민옹전>』, 『영주어문』 18, 영주어문학회, 2009.
- 李家源, 『燕巖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
- 李民熙, 『심리 치료 측면에서 본 <閔翁傳> 小考』, 『古典文學研究』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 李時鎔, 『朝鮮朝 書堂敎育』, 『論文集』 19-1, 仁川敎育大學校, 1985.
- 정범진 외 역(司馬遷 著), 『사기열전』, 까치, 1995.

조도현, 「〈閔翁傳〉을 통해 본 조선후기 이야기꾼의 존재와 고전소설 유통의 의미 탐색」, 『語文研究』 69, 어문연구학회, 2011.

조은심, 「불안과 우울 증세에 대한 문학치료의 사례」, 『문학치료연구』 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황인덕, 「‘이야기꾼’으로 본 <민옹전(閔翁傳)>의 ‘민옹」, 『口碑文學研究』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Abstract

## The Meaning of a Writing on the Wall *Minongjeon*

Park, In-Hee

*Minongjeon* is a biography(Jeon, 傳) that Park Ji-won wrote in order to celebrate Min Yu-sin. A writing on the wall in *Minongjeon* appears in the first part of the work and has a short passage in a few lines. Therefore, the writing has not been dealt with, even though *Minongjeon* has been studied. This paper attempts to deal with the value and role of the writing on the wall in *Minongjeon*.

Park Ji-won said that Min Yu-sin was a classical scholar having an ambition to his dying day. Therefore, Park Ji-won wrote *Minongjeon*. And such an aspect of Min Yu-sin is confirmed through the very writing on the wall. The writing introduced by Park Ji-won shows the trace of Min Yu-sin's life. He practised as well as had an ambition from his early age and did not lost it in his old age. He was a poor aristocrat but had an ambition to enter government service by improving his ability for his country and the people. Unfortunately, he couldn't enter government service but he never lost his ambition and was not lazy to improve his ability for the day that he didn't know when. Such a life of Min Yu-sin is reflected in the writing on the wall. And therefore Park Ji-won appraised Min Yu-sin as 'a meaningful classical scholar having an

ambition to his dying day' and celebrated him by writing the biography after his death. Min Yu-sin's life shows persons, forgetting their duties as an aristocrat, how to live and the writing on the wall convinces them of laziness.

Furthermore, through the writing on the wall,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life of a studying person as an aristocrat in the Joseon period. The writing shows that the life of a studying person is fulfilled by going through a process consisting of beginning a study, setting a specific goal, practising the study, attaining a certain standard, and beginning another study. Through the writing,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in that process, the studying person must set a specific goal and be active and easy in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 writing on the wall in *Minongjeon* speaks for the life of Min Yu-sin who faithfully followed the typical life of a studying person in the Joseon period. It is also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 Min Yu-sin, through the social intercourse between him and Park Ji-won in *Minongjeon*. However, in the case of understanding the character, Min Yu-sin, through the writing on the wall, it is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at Park Ji-won wrote the biography in grief.

Key Words : *Minongjeon*, A Writing on the Wall, Park Ji-won, Min Yu-sin, *Banggyeongakoejeon*